

“시나리오 보고 울었어요 이 감정 관객에 전하고 싶어”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이광수

지적장애인 동생 역할
“연기 희화화될까 봐
적정선 지키려 노력했죠”

이광수(34)는 본업인 배우보다는 예능인으로 더 알려졌다. SBS TV '런닝맨' 주요 멤버로 10년 가까이 활약하며 코믹한 이미지가 굳어진 탓이다.

그러나 그는 연기를 제법 잘하는 배우 중 하나다. 드라마 '안투라지' '마음의 소리' '화랑' '라이브'와 영화 '탐정: 리턴즈' 등에서 크고 작은 배역을 활짝같이 소화해냈다.

다음 달 1일 개봉하는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육상호 감독)는 '배우 이광수'를 대중에게 각인하는 작품이 될 듯하다.

그는 5살 아이의 사고를 지닌 지적장애인 동구를 연기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지적장애인 형 세하(신하균)만을 바라보는 '형 바라기'다. 동구는 형의 손발이 되고, 세하는 동구의 머리가 돼 행복하게 살지만, 세상은 둘을 갈라놓으려 한다.

이광수는 순수한 성격을 지닌 동구 역할을 진심을 담아 표현했다. '연기신'으로 불리는 신하균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이광수는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보니 (장애인 연기를 하면) 희화화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작품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울었다”면서 “제가 느낀 감정을 관객에게 전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 대해 소중함,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광수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쓴 점은 연기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었다.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제 이미지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웃겨도 재밌게 봐주시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적정선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광수에게 예능 이미지는 '악이자 독'이다. 그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런닝맨' 덕분이었다. 런닝맨'이 없었다면 이번 영화를 함께 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스물여섯살 때 합류했는데, 지금까지 하게 돼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런닝맨' 이미지 때문에 제작품에 몰입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며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모두 배워놓을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 연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웃었다.

190cm 경중한 키에 큰 눈을 지닌 이광수는 외모에서부터 '선함'이 풍긴다. 육상호 감독은 이광수를 처음 본 뒤 “눈이 맑아 동구의 순수함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캐스팅했다”고 했다. 실제 성격도 “착하다”는 게 주변인들의 공통된 평이다. 이광수는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라며 “주변에서 자주 착하다고 말해 주니까 저 스스로도 노력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광수는 배우 이선빈(25)과 열애 중이며 지난해 12월 이런 사실을 공개했



다. 그는 “거짓말하기가 싫었고, 상대방도 같은 생각이었다”면서 “열에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는 편하게 만났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해서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내진감에 결혼 계획을 묻자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직 어른이 될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광수는 '런닝맨' 덕분에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에서 한류스타가 됐다. '아시아

프린스'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번 영화가 국내 개봉에 앞서 27일 베트남에서 상영회를 여는 것도 이광수 인기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

그는 “제 이미지가 친근하고 편안해서 해외에서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면서 “저는 제 일로 한 번도 그 단어(아시아 프린스)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며 민망해했다. /연합뉴스

박유천, 소속사서 방출 ... “연예계 은퇴”

마약혐의 신뢰 회복 불가능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사진)이 소속사에서 방출됐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4일 “박유천과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제스는 “박유천의 결백 주장을 믿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던 중 어제 국과수 검사 결과가 (마약) 양성 반응으로 나왔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박유천 진술을 믿고 조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접한 지금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유천은 기자회견에서 말씀 드린 대로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며, 향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 손녀 황하나

(31)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여서 경찰은 박 씨의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해 감정 의뢰했고 이번에 국과수에서 검출된 필로폰은 다리털에서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 검사 결과를 첨부해 전날 검찰에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SBS, 파일럿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 내달 방송

SBS TV는 파일럿 프로그램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을 다음 달 방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스터리 키친'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관원 SBS PD와 4번째로 호흡을 맞추는 프로그램이다. 백 대표는 이 PD와 '3대천왕', '푸드트릭', '골목식당' 등을 함

께했다. 진행자로는 김성주와 김희철이 합류한다.

방송에서 출연자들은 오로지 음식으로만 '숨은 고수'들을 추리해간다. 블라인드 처리한 그림자 셰프들은 얼굴, 직업, 목소리 등 모든 것을 노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음식의 맛으로만 대결을 펼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더 뱅커(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40 나의 독립 영웅(재)	00 닥터 프리즈너(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원손잡이 아내(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이사 콩도령 2		25 푸르기 식자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크(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뽀글이 사랑해 55 슬플 때 사랑한다(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전국시대	00 뒤뚱뚱뚱 로그인 코리아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55 가로채널(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닥터 365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55 SBS 8 뉴스
8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과학의 달 특집 독과 약) 55 오늘밤 김제동	00 닥터 프리즈너	00 더 뱅커	00 빅이슈
11	35 UHD 숨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색션 TV 연예통신 1~2부	10 열혈시제 특집 우리는 열혈 사이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스포츠 다이어리 35 문화사책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07:30 출동! 슈퍼핑크 08:00 동동당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람랄라 뿌우 09:00 두다다쿵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통통개 영양법과 오징어젓갈 양념장)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3:00 지식채널e 13:10 최고의 요리비결 (매콤 황태튀김)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14:30 엠버와 함께 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4:4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5:00 마사와 품스페셜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6:15 출동! 슈퍼핑크 16:30 람랄라 뿌우(재) 16:45 동동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17:30 뽀뽀뽀 뽀뽀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원더볼즈(재)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세계테마기행 <꼭 한번은 북유럽 4부 지상 최고의 길 노르웨이> 21:30 한국기행 <길 끝, 마을이 보인다 4부 낮선 시골에서 살아보기> 21:50 다큐 시선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5일 (음 3월 21일 壬辰)	
子	36년생 머뭇거리다가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48년생 좋은 일이 있는 과정에서 마도 많이 끼는 법이다. 60년생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보인다. 72년생 속단은 실패를 몰고 올 것이다. 84년생 고민했던 바가 드디어 해결 되었다. 행운의 숫자 : 38, 32	午	42년생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한 때이다. 54년생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하겠다. 66년생 얼마나 치밀 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78년생 기초를 이루는 것은 유지해야 하느니라. 90년생 함께 하되 굳이 상호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2, 14
丑	37년생 기대 해왔던 것이 실망시키는 정황이다. 49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면 그만이다. 61년생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소중함을 잃을 수 있다. 73년생 공통적이어서 더불어 처리하게 된다. 85년생 낡은 것은 버리되 새 것에 대한 노력을 배가함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37, 30	未	43년생 이제는 결단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55년생 아무렇게 다잡아야 할 시기이다. 67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79년생 지나치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우니라. 91년생 간단하게 처리하자. 행운의 숫자 : 80, 71
寅	38년생 실적이 없다면 나설 이유도 없다. 50년생 지금, 보완하지 않으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62년생 순조로움을 더 하고 있다. 74년생 어느 누구에게나 겸손하자. 86년생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간과 하여서는 아니 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36, 77	申	44년생 부실한 판국이므로 잘 살펴보자. 56년생 실속을 차려야 할 때이니라. 68년생 고비를 넘기고 나면 행복이 깃들 것이다. 80년생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내버려 두는 판세이다. 92년생 평상시에 몹시 찾던 것이 코앞에 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8, 62
卯	39년생 기교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클 것이다. 51년생 미련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인 판국으로 이끈다. 63년생 안정세를 굳히게 되지만 노고는 따를 것이다. 75년생 쉼을 잘 해야 손해 보지 않느니라. 87년생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19, 47	酉	45년생 중복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년생 각오하고 담치 않으면 안 된다. 69년생 의외의 결과를 앞에서 매우 기뻐하는 대양이다. 71년생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93년생 최후의 결정은 자신이 직접 내리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79, 33
辰	40년생 짐작 해아만 이를 수 있다. 52년생 부족하다면 좀 보태면 되는 것이다. 64년생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을 알라. 76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하라. 88년생 명분에 사로잡힌다면 손실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65, 66	戌	34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약재가 보인다. 46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58년생 가피하다면 승망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다. 59년생 불가피하다면 승망으로 알고 수용하라. 71년생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내야 편하다. 83년생 상대의 깊은 의중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96, 03
巳	41년생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53년생 마지막 고비이니 최선을 다하고 보아야겠다. 65년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아예 만들지 마라. 77년생 양호한 판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89년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2, 51	亥	